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3. 4. 23

「마가복음 천두 번째 말씀」

은혜가 더 빠르다

Grace is faster

마가복음 14:27-31, 54-62

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1. 오늘 본문에서 아래 두 가지 명제를 확인해 수 있습니다.

- 1)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줄 아셨다. (27)
- 2)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고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다. (29, 31, 62)

*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진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인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일텐데, 그 진심에 부응하는 행동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나요?

*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셨음에도 돕기는커녕 좌절을 맞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 ‘자기 의’란 나에게 믿음도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지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정죄...)

* 베드로는 훗날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나요? (벤전 4:8) 만약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을 다 받아내고 살아났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 본문 28절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다. 그들의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먼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나에게 도전이 되거나 은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삶에 적용해봅시다.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Centra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Kansas